

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이_녕
파견국가	일본	파견도시	마츠야마
파견대학	에히메대학교	파견기간	1년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에히메대학교는 일본 에히메현의 마츠야마에 있는 국립 대학교로, 에히메대학교 소속의 미유키 기숙사로부터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. 식당, 카페,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,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. 또한, 승마, 양궁, 클라이밍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</p>
2016-1학기 수업	<p>일본어 수업은 일본어A와 한자A, 전공수업으로는 세미나와 수화를 수강하였습니다.</p> <p>일본어와 한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, 각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일본어시험을 보며, 그 결과에 따라 반이 달라집니다.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모른 채로 갔기 때문에 A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. 교수님들께서는 초급반 수준에 맞게 천천히, 쉽게 설명해주시며, 그 날 배운 단어와 문법을 활용하여 교재의 문제를 풀고, 작문과 회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학습지를 풀어오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통해 배운 것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며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, 의미는 알아도 한자를 일본어로 읽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A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. 교수님의 전체적인 지도하에 1~2명씩 일본인 서포터즈와 함께 수업이 진행되며, 한자와 그 한자의 히라가나를 쓰는 연습과 각 한자를 사용하여 작문을 하면 서포터즈가 한자는 잘 썼는지, 작문한 문장의 문법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줍니다.</p> <p>세미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수학교에 가서 견학을 한 후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는 수업입니다.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두가 모여 특수학교를 견학한 후 느낀 점 등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.</p> <p>수화 수업에서는 일본의 수화를 지문자부터 이름, 가족, 취미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웁니다.</p>

	<p>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공 수업(세미나, 수화 수업)을 듣는다면 더 깊은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, 저처럼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 경우,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/p>
<p>2016-2학기 수업</p>	<p>일본어 수업으로는 일본어B, 한자B, 전공 수업으로는 특별지원교육학개론, 언어장애 검사법, 청각검사법, 교육청능학, 지체부자유아 교육과정 및 지도법을 수강하였습니다.</p> <p>일본어와 한자 수업은 1학기 때 최종시험을 본 결과 합격할 경우 다음 년이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일본어는 1학기 때 수강한 A에 비해 난이도만 다를 뿐 수업방식은 같습니다. 수업 전, 단어를 미리 예습해 간다면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</p> <p>한자 수업의 경우 1학기 때에는 교수님의 전체적인 지도하에 수업이 진행되었다면, B반의 경우에는 2-3명 씩 한 조가 되어 일본인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으며 개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. 수업 진도는 스스로 결정합니다. 그 날의 목표를 정한 후, 한자 쓰기와 한자를 이용한 작문을 합니다. 자신이 만든 문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고른 후, 칠판에 쓰고,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.</p> <p>특별지원교육학개론은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.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순천향대 특수교육과에서 1학년 때 「특수교육학개론」을 공부하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</p> <p>언어장애 검사법은 특수교육과의 「특수아진단 및 평가」와 비슷합니다. 다양한 검사를 자신이 직접 실시하는 것이 참 좋지만, 일본 형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검사법과는 다릅니다.</p> <p>청각검사법은 순천향대에서 배운 「청각장애아 교육법」과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. 직접 청력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추천하는 수업입니다.</p> <p>교육청능학은 보청기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는 수업입니다. 보청기의 종류를 알고, 보청기를 착용해보며, 보청기를 직접 피팅합니다. 매 시간마다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쪽지시험이 있으며, 직접 보청기를 착용한 후 자신에게 가장 편한 정도를 찾아 피팅하는 과제 등이 있습니다.</p> <p>지체부자유아 교육과정 및 지도법은 교육과정과 지도법을 배우고,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지체부자유 아동에게 각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줄 수 있는 활동과 선생님과 아동으로 역할을 나누어 지체부자유 아동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상황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배웁니다.</p>

	<p>아직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2학기 전공 수업 내용의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, 1학기에 비하여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1학기 때 들은 전공 수업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.</p>
프로그램 운영	<p>ICO라는 단체에서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매년마다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, 올해에는 학기 초 유학생 환영 파티, 가을에는 할로윈 파티,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습니다. 재미있는 게임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,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ICO에 소속되어 있는 일본 친구들과 유학생들과 함께 타코야끼를 만드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.</p> <p>학교에서도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기모노와 다도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, 이러한 프로그램은 매번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일본 문화를 경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마츠야마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입니다. 여름에는 30°C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, 햇빛도 강하고, 습하며, 매우 덥습니다. 대신 겨울은 한국에 비해 따뜻합니다. 12월 말의 경우, 최고기온이 평균 12°C입니다. 따뜻하기 때문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. 12월은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은 춥습니다. 비가 자주 내리며,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기 때문에 우비와 장화,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
안전	<p>매우 안전합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V) 홈스테이 () 외부 숙소() 기타() 기숙사 이름은 미유키 기숙사입니다. 미유키 기숙사는 1인 1실입니다.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으며, 매우 좁습니다. 옷장을 열기 위해 접이식 침대를 접어야합니다.</p> <p>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게만 기숙사 출입이 가능한 카드를 주며, 통금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.</p> <p>여름에는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매우 더운데, 이 때 에어컨을 오랫동안 틀다면 전기요금이 매우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잘 알아보고 조절해서 쓰거나, 선풍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</p>

	<p>좋습니다. 또한 실외보다 실내가 더 춥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수면잠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세탁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약 2,000원이며, 방안 베란다에 빨래를 널 수 있습니다.</p> <p>기숙사 내에서는 금연입니다.</p> <p>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.</p> <p>저는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1인 1실인 것과, 정말 많이 좁지만 생활하다보면 적응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.</p>
<p>식사</p>	<p>학교 Meal Plan () 학교식당 개별이용 (V) 홈스테이 () 외부식당 (V) 직접 요리 (V) 기타 (V)</p> <p>저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통조림 음식과 김, 일본에서 산 햇반으로 밥을 먹거나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 먹었습니다. 기숙사와 학교에는 식당이 있습니다. 기숙사 식당은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이용한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모두 맛있다고 합니다. 학교 식당에서는 무게를 달아서 비용을 지불합니다. 처음 먹을 때에는 너무 달거나, 너무 짠데 이제는 적응되어서 맛있습니다.</p> <p>가끔은 외부 당에서도 밥을 사먹었는데, 스시나 우동, 카레, 파스타, 샐러드 등 기숙사식당과 학교식당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기분전환 겸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.</p> <p>한국에서 김치와 마른반찬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. 마트에서도 김치를 팔지만 한국김치와 다르게 단 맛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매우 그리울 것입니다.</p>
<p>교통</p>	<p>미유키 기숙사부터 학교까지 자전거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, 걸어서 간다면 약 30~40분 소요됩니다.</p> <p>마츠야마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, 마츠야마에서 오사카를 경유하여 한국을 가야합니다. 마츠야마에서 오사카에 가는 비행기는 밤 비행기로 한 대 있기 때문에, 오사카에서 하루 숙박 후 한국으로 가야합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마츠야마-오사카-한국 왕복 약 35만원	피치항공 기준 예매 시기에 따라 다름
Fees	<i>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,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.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.</i> 예) University Support Fee, \$3,000	
보험료	한 달 약 12,000원	에히메 대학교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습니다. 가입비 별도
숙소	한 달 약 18만원	전기세, 수도세 별도 공용세탁기 한 번 이용시 약 2,000원
교통비		기숙사-학교는 자전거 이용 학기 초 학교에서 중고로 싸게 판매 자전거마다 가격이 다름
책값	일본어 : 한 학기에 4만원 (두 권 사용) 한자 : 1학기만 사용(A반 기준) 약 15000원	일본어 수업의 경우 한국에서 사가는 것이 더 저렴함 민나노 일본어) 한자 B반의 경우, 복사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하지 않음
공과금	전기세 : 한 달 약 3만원 수도세 : 세 달 약 3만원 인터넷비 : 한 달 약 2만원	
휴대폰	한 달 약 1만원	유심비
식비	?	한 달 기준 50만원에서 위의 것들을 지불 한 후 사용해도 남았음

합계	저는 한 달 기준 50만원정도 사용하면 적당했습니다. (첫 달 제외)	사람마다 다름 (특히 식비의 경우, 직접 요리하는 사람보다 사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지출)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1. 와이파이 기계가 있다면,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와이파이 기계를 가져가서 인터넷 비가 한달에 약 2만원이 나왔지만,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기계 값도 지불해야합니다.
2. 일본어 교재는 한국에서 사가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. (책 이름 : 민나노 일본어/반마다 단계가 다르므로 주의)
3. 여학생의 경우,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기 때문에 H라인 치마, 구두 등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입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오면 방이 좁아 둘 곳도 없고 짐만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.
4. 샴푸, 린스, 바디워시나 헷반 등은 한국 가져가거나 EMS로 보내는 것보다 일본에서 사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.
5. 돼지코는 여유롭게 2~3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.
6. 전기매트나 드라이기, 고데기 등 전기제품은 돼지코를 사용하여 연결하여도 열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는 고데기만 적상적으로 작동하고 나머지는 작동하지 않아서 새로 샀습니다. '니토리'라는 곳에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.
7. 첫 달은 보험 가입이나 생활 용품 구입 등으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환전을 많이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출국 전 100만원정도 환전해갔습니다.
8. 수건과 여성용품은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.
9. 침구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기숙사에서 단체로 주문할 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.
10. 실내가 춥기 때문에 수면양말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는 성격이지만,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라 그런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. 정말 좋은 교수님과 친한 친구들이 함께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, 지금 나에게 주어진 교환학생이라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, 내 눈 앞에 놓인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.

1년간의 교환학생을 통해 시야가 넓어졌고, 여러모로 더 성장하였습니다.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순천향대학교에 돌아가면 더 열정적이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지도 교수님(타치이리 교수님)과 튜터 친구들과 함께 일본 로컬 아이돌 공연을 보러 가서



지도 교수님과 튜터 친구들과 함께 조개를 캐러 감



에히메 대학교 여름 축제



에히메 대학교 여름 축제



지도 교수님과 함께 등산 후 산 정상에서 찍은 풍경



가을의 아름다운 에히메 대학교 캠퍼스